

韓 国 語

(解答番号 ~)

第1問 次の問い(A~C)に答えよ。(配点 18)

A 下の①~④の下線部の発音が, 見出し文の下線部と同じ発音になるものを,
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그 결과가 아주 궁금합니다.

- ① 국물이 좀 짜지 않아요?
- ② 국산품을 애용합니다.
- ③ 저 건물이 국회 의사당입니다.
- ④ 혹시 국어사전 없어요?

B 次の問い(問1・問2)において、下線部①、②を、例に示したようにハングルで発音表記する場合、その組合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例 저기 ①있는 것이 질도 ② 좋고 값도 싸요.
 発音表記 ① [인는]——② [조코]

問1 내일은 ① 불일이 있어서 ② 못을 겁니다. 2

- ① ① [보리리]——② [모술]
- ② ① [불리리]——② [모술]
- ③ ① [보리리]——② [모돌]
- ④ ① [불리리]——② [모돌]

問2 ① 긴급히 처리한다는 조건을 ② 붙여서 제안을 받아들였다.

3

- ① ① [긴그비]——② [부처서]
- ② ① [긴그피]——② [부처서]
- ③ ① [긴그비]——② [부터서]
- ④ ① [긴그피]——② [부터서]

韓国語

C 次の問い(問1～3)において、a～cは韓国語の単語を漢字で表記したものである。下線部をハングルで表記した場合(例：長 장)の異同について正しく述べた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⑤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なお、かっこ内は日本の常用漢字の字体である。

問1

4

a 穩當(穩当)

b 溫度(温度)

c 音聲(音声)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

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

問2

5

a 保健(保健)

b 保險(保険)

c 派遣(派遣)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

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

問3

6

a 共同

b 協力

c 公約(公約)

① aとbが同じ

② aとcが同じ

③ bとcが同じ

④ すべてが同じ

⑤ すべてが異なる

第2問 次の問い(A~F)に答えよ。(配点 80)

A 次の問い(問1・問2)の下線部の単語について、辞書の見出し語として正しいものはどれか。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발음보다 문법이 더 쉬워요. 7

- ① 쉬우다 ② 쉽다 ③ 쉬다 ④ 쉬웁다

問2 짐이 많은데 택시에 다 실 수 있을까요? 8

- ① 시르다 ② 싣다 ③ 실다 ④ 싣다

B 次の問い(問1・問2)において、例にならって単語の形を変えるとき、(a)・(b)に入れる語形の組合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例 보다 → 봐요

빠르다 → (a) 고프다 → (b) 9

- ① a 빠라요 b 고포요
② a 빨라요 b 고포요
③ a 빨라요 b 고포요
④ a 빠라요 b 고포요

問2 例 보다 → 보십니다

만들다 → (a) 자다 → (b) 10

- ① a 만드십니다 b 주무십니다
② a 만드십니다 b 잠수십니다
③ a 만들으십니다 b 주무십니다
④ a 만들으십니다 b 잠수십니다

C 次の問い(問1~6)の ~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 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이 책은 제가 선생님 전해 드릴게요.

- ① 에 ② 에서 ③ 께 ④ 께서

問2 마침 약국이 늦게까지 있어서 다행이었다.

- ① 열어 ② 열려 ③ 열리고 ④ 열어서

問3 표정이 딱딱하니까 웃어 보세요.

- ① 자연에 ② 자연이 ③ 자연스럽게 ④ 자연하게

問4 박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로부터 분이셨습니다.

- ① 존경 맞는 ② 존경 입는
③ 존경당하는 ④ 존경받는

問5 일기를 깜박 잠이 들었어요.

- ① 쓰다가 ② 썼다가 ③ 쓰자고 ④ 쓰려고

問6 지금 너한테 가려던 이었는데 마침 잘 왔다.

- ① 법 ② 참 ③ 곳 ④ 적

韓国語

D 次の問い(問1・問2)において、(a)・(b)に入れる組合せ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출석 번호 (a) 번을 (b) 번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17

① a 삼 b 삼

② a 세 b 삼

③ a 세 b 세

④ a 삼 b 세

問2 나이가 들어서 상처가 (a) 잘 안 (b).

18

① a 나면 b 낮아요

② a 나으면 b 나아요

③ a 나면 b 나아요

④ a 나으면 b 낮아요

E 次の問い(問1~4)において、下線部に最も近い意味のものを、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훌륭한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졌다. 19

- | | |
|---------|--------|
| ① 살아 왔다 | ② 살아났다 |
| ③ 없어졌다 | ④ 지켜졌다 |

問2 저는 한국 소설을 읽은 적이 없어요. 20

- | | |
|------------|----------------|
| ① 읽지 못했대요 | ② 읽을 리가 없어요 |
| ③ 못 읽어 봤어요 | ④ 읽지 않을 수 없었어요 |

問3 이번 일은 다음 주말까지 틀림없이 해 놓겠습니다. 21

- | | | | |
|-----|-----|--------|--------|
| ① 꼭 | ② 곧 | ③ 변함없이 | ④ 끊임없이 |
|-----|-----|--------|--------|

問4 난 그 사람이 벌써 귀국한 줄로 알았다. 22

- | | |
|--------------|---------------|
| ① 귀국한 것을 알았다 | ② 귀국했다고 생각했었다 |
| ③ 귀국한다고 생각했다 | ④ 귀국했었을 것이다 |

第3問 次の問い(A~C)に答えよ。(配点 51)

A 次の問い(問1~6)の ~ 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 それぞれ下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ずつ選べ。

問1 A: 오늘이 며칠이지요?

B: 오늘은 .

- ① 3시 반입니다
- ② 노는 날입니다
- ③ 1월 15일입니다
- ④ 집안일입니다

問2 A: 놀러 온다 온다 하시면서 왜 안 오세요?

B: 일이 바빠서 못 가는 거야.

- ① 가고 싶진 않지만
- ② 놀러 갈 바에야
- ③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 ④ 놀러 갈 수 있으니까

問3 A: 누가 여기 왔다 가지 않았어요?

B:

- ① 아무런 일도 못 하겠어요.
- ② 아무 사람도 안 됐어요.
- ③ 아무도 안 왔어요.
- ④ 아무래도 못 가겠어요.

問 4 A : 이번 경기는 우리 팀이 이길 거야.

B : 무슨 소리, 이번에도 우리야.

A : 그래? 어떨지 !

- ① 시장 보자
- ② 두고 보자
- ③ 놓고 봐라
- ④ 집을 봐라

問 5 A : 저 다음주에 여행 가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요.

B : 옷? ?

A : 에이, 그걸 또 입으라고요?

- ① 내일 네 마음에 드는 거 사러 갈까
- ② 옷보다 구두가 더 중요하지 않아
- ③ 옷이 없으니깐 못 오겠지
- ④ 너 파란 점퍼 있잖니

問 6 A : 엄마, 내 가방 어디 갔지?

B : , 네 방이지. 자기 건 자기가 잘 챙겨야지.

- ① 어딘 어디야
- ② 거긴 여기야
- ③ 여긴 거기야
- ④ 거긴 거기야

B 次の対話文を読み, 下の問い(問1・問2)に答えよ。

김만중 : 오늘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있어요?

이성주 : 다음주에 일본어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돼요.

김만중 : 일본말 공부한 지 꽤 됐잖아요?

이성주 : 네, 한 3년 정도 됐어요.

김만중 : 그럼 ③③ たいていのことは全部わかってるでしょうに, わざわざ試験勉強をし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다들 이성주 씨는 일본말을 잘한다고 하던데요.

이성주 : 무슨 말씀이요. 34 더구나 내년쯤 유학 갈 건데 더 열심히 해야죠.

問 1 下線部③③の韓国語訳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 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33

- ① 어지간한 건 다 알 텐데 따로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 ② 대개 전부 이해하지 못해서 특별히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 ③ 모든 것은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시험 공부를 하면 안 돼요?
- ④ 대체로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따로 시험 공부를 하면 안 돼요?

問 2 34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 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 ① 많이 배웠지요, 뭐.
- ② 시험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 ③ 다음주 시험은 자신이 있어요.
- ④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C. 次の対話文を読み, 下の問い(問1~3)に答えよ。

A: 할아버지, 이 인삼 좀 이상하네요.

B: 이걸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야.

A: 산삼이요? 보통 인삼하고 달라요?

B: 뭐라고? 산삼도 몰라? 요즘 애들은 참…….

깊은 산 속에서 ^㉔自生したのが 산삼이야.

A: 산삼이 인삼보다 좋아요?

B: 물론이지. 몸에도 훨씬 좋고 귀하단다. 특히 36. 이것도 100년은 된 거야.

A: 그렇게 오래 살아요?

B: 산삼 중엔 더 된 것도 많아. 한 300년 된 건 값도 엄청나단다.

A: 그런데 37

B: 크기하고 빛깔 같은 것을 종합해서 판단한단다.

問 1 下線部㉔の韓国語訳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 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35

- | | |
|---------------|-------------|
| ① 저절로 나서 자란 게 | ② 자연히 키운 게 |
| ③ 스스로 가꾼 게 | ④ 자유롭게 심은 게 |

問 2 36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 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 ① 오래 찾은 걸수록 더 좋지
- ② 오래 묵은 걸수록 더 좋지
- ③ 오래 말린 거라면 더 좋지
- ④ 오래 쓴 거라면 더 좋지

韓国語

問 3 37に入れるのに最も適当なものを, 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 ① 왜 이런 색깔이지요?
- ② 그걸 어떻게 알아요?
- ③ 약 300 년은 살아요.
- ④ 짜면 쌀수록 좋겠어요.

第4問 次の文章を読み, 下の問い(問1~4)に答えよ。(配点 23)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친구와 도서관에 들렀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친구와 같이 햄버거라도 먹을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혼자 집 근처의 단골 책방을 찾았다. 모자를 즐겨 쓰시는 주인 아저씨는 늘 친절하고 게다가 책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잘 아신다. 아저씨는 책방을 하시면서 번역도 하시는 모양이다. 아직 번역한 책을 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지만…….

도서관에서 봤던 '벚꽃나무의 꿈'이라는 소설책을 사고 싶었다. 조금 전에 본 것과 똑같은 책은 없었지만, 표지가 새로 바뀐 책이 있었다. 연분홍색* 벚꽃잎이 곱게 새겨진 디자인이 꽤 인상적이었다. 가방을 옆에 내려 놓고 한동안 읽고 있는데, 누가 “재미있나?” 하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고개를 38 하얗게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나는 좀 당황했지만 “네, 아주 재미있어요.”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안경 너머의 할아버지 눈이 빙긋이 웃는 듯했다. 책이 한 권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이거 사시려고요?”라고 여쭙 보았더니, “아니, 됐어. 고맙네.” 하시고는 책방을 나가셨다. ‘별로 고마운 일이랄 것도 없는데…….’

읽던 책을 주인 아저씨에게 건네주며 “제가 사서 왠지 죄송하네요.”라고 했더니, “아냐, 도리어 39.” “네? 왜요?” “실은 이 책을 쓰신 분이거든, 방금 그 할아버지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책을 받아 들고 얼른 뛰어 나갔다. “고맙네.”라고 하신 것은 ^㉔그런 뜻이었구나. 할아버지께서 걸어가신 쪽을 바라보니 어느새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벚꽃 꽃잎만이 바람 속에 흩날리고 있었다.

*연분홍색 : うす桃色

第5問 次の文章を読み, 下の問い(問1~5)に答えよ。(配点 28)

한국에는 사주점이라는* 점이 있다. 사람이 태어난 해, 달, 날, 시간, 바뀌 말하면 '생년월일시'를 이용한 점인데, 한국에서 점이라고 하면 보통 이 사주점을 가리킬 만큼 일반적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가 궁금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등등, 남녀노소를 44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주점을 보곤 한다.

사주점은 최근 들어 유행하게 된 것이 아니다. 옛날부터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교환해서 서로 궁합이** 맞는지를 보는 풍습이 있던 것으로 보아, 사주점이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 뿌리내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주점은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것이다. 음양오행설은 세계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음양설과, 모든 것이 목, 화, 토, 금, 수의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오행설이 합쳐진 것으로, 사주점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에는 사주점뿐만 아니라 음양오행설과 관계가 깊은 것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글이다. 한글은 15세기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원리를 해설한 책에 "천지의 도리는 오직 음양오행뿐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도 그렇다. 태극기 가운데에 있는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은 각각 음과 양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주로 점을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근거 없는 미신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음양오행설과 같은 동양의 깊은 철학과 삶의 조화를 중시하고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韓国語

問 4 下線部㉔が表す意味として最も適当なものを, 次の①~④のうちから一つ選べ。 46

- ① 요즘에 와서 유행된 것이 아니다
- ② '훈민정음' 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③ 근거가 없는 미신으로 간주되고 있다
- ④ 음양오행설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問 5 本文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 次の①~⑥のうちから二つ選べ。ただし, 解答の順序は問わない。 47 · 48

- ① 한국에서 점이라 하면 보통 사주점을 말한다.
- ② 사주점은 남녀의 궁합을 보기 위해 생겨났다.
- ③ 사주점은 요즘 들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 ④ 음양오행설은 본래 한국에서 시작된 사상이다.
- ⑤ 한글과 태극기는 모두 15 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 ⑥ 사주점에는 동양의 철학인 음양오행설의 뜻이 들어 있다.